'제11차 주류 이물저감화 간담회' 개최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4월 29일 ~ 30일 양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11차 주류 이물저감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와 10개 주류제조회사가 참여했다.

첫째날에는 2015년 식약처 주류안전관리 방향과 주류 이물관련 법규 및 현황, 주류의 HACCP적용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롯데칠성음료 충주 맥주공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류안전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류중 위해요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는 주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중심으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류 섭취량 조사, 원료 등의 위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 평가를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주세법의 상이한 기준규격을 통일하기로 한다. 또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에 대한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둘째로 주류제조 · 유통의 안전관리 강화는 위생관리등급제의 운영 강화를 말한다. 위생등급관리제는 업체를 3등급(자율 · 일반 · 중점)으로 구분하고 차등관리하는 것이다. 제조 유통단계에 있어 통계에 기반한 체계적 수거검사를 실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한 주류 생산을 위한 영세업체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주류 이물 저감화 간담회도 2014년 소주 · 맥주에서 시작하여 2015년 탁 · 약주, 2016년에는 과실주를 추가시키고 2017년에는 전체 주류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새로운 주류 소비형태에 대한 적극 대응은 소규모 맥주, 자가소비맥주 등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류소비 변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류 섭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기초위생안전관리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한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음주 습관 및 요령 등 맞춤형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넷째로 주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소통강화인데 이는 주류 특성에 맞는 시설 ·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주류정책에 관하여 협의회 등을 통한 소통기능 강화이다. 먼저 시설 및 표시기준 개선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 등에 관하여 조정하여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류 정책에 관한 소통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업계, 학계, 학회,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주류안전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법령설명회, 이물간담회, 우수업체 견학 등을 꾸준히 실시하기로 한다.